비교문화연구 제 9 집 1 호, (2003) pp.175-210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요개념〉 식민담론, 식민권력, 동서양 정체성, 섹슈얼리티, 젠더, 여행기, 오리엔탈리즘, 하렘, 오리엔탈리스트 아트(Orientalist Arts), 여성여행자

식민권력과 섹슈얼리티: 19세기 서구 여성의 여행기에 나타난 담론들을 중심으로*

김현미**

1. 문제제기

> 오리엔탈리즘은 전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다. 근대기에 다른 많은 전문적인 길드처럼, 오리엔탈리즘 그 자체나 주제들도 성별문제를(sex blinders) 보지 못했다. 이런 점은 특별히 여행자나 문학가들의 글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사이드 1978: 207).

사이드가 인정한 것처럼, 대표적인 식민담론인 오리엔탈리즘은 식민 시기에 구성된 '남성' 담론이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서양이 동양을 문화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나의 모습을 갖는 언설(discourse)로서 표현하고 표상하는 체계라는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식민 권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정치학을 밝혀내고자 했다. 곧 오

*본 논문은 2000-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동서양 정체성 형성에 관한 비교연구: 20세기 아시아 지식인의 서구체험과 서구의 식민/성담론의 전개〉(학진과제번호: KRF-2000-045-B22104) 연구 결과의 일부분이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론적이자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또한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인들의 지정학적 상상력"이다(Emberly 1993). 즉, 서구 남성의 '외부/바깥(exteriority)'으로써 구축된 동양은 특히 타자로서의 식민지 여성의 몸의 '영토화'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제국주의적 담론은 성별관계와 성적 은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왔고 이에 따라 정복과 지배의 감정이나 욕망과 결합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식민담론들은 식민지 여성과 본국의 여성들 모두를 남성응시의 대상으로 그려냈지만, 그들은 성적으로 위계화된 관념 속에 차별적으로 위치되었다. 식민제국의 여성과 식민화된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남성들의 성적 실천의 대상으로서인데, 전자는 잠재적인 성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비성애적인' 존재이고 후자는 성적인 접근이 언제라도 가능한 과잉으로 성애화된 존재였다(Mills 1991: 59). 이러한 성적 시선은 서구 제국주의 남성의 정체성을 형성해내는 주요한 기제로 작동했다.

사이드(1978/2000)는 서구, 특히 영국과 프랑스 남성의 여행기를 분석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이 어떠한 '시각 양식'과 함께 생산되는지를 분석한다. 남성 순례자나 여행자 또는 지식인들에게 동양은 "단순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의 '토포스(topos)', 곧 인용구의 집합이고 특징 점의 집합이었다"(사이드 1978/2000: 317). 동양은 동양에 대한 자기 본위적인 기억과 끊임없는 반복적 재현으로 서구 남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지점이 된다. 그러나 남성여행자의 정체성은 식민 시기에 새롭게 부상한 것은 아니었다. '호모 비아토(Homo Viator)'로서의 남성 여행자의 이미지가 중세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 호모 비아토는 먼 곳으로 순례를 떠나 이상스럽고 특이한 이야기, 에로틱한 모험담, 위험했던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득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서구 남성 여행자를 의미했고(Palsson 1993: 6), 식민지 정복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서구 남성의 상상력은 구체적인 성적 경험과 상상

력의 대상으로 '동양'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식민지의 최고 절정기인 19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순례자들은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으로 동양을 여행할 뿐 아니라, 동시에 "동양의 불온한 영향력(위험한 성적 매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사이드 2000: 299)는 시대적 욕망을 담지하였다. 사이드에 의하면 당시 영국인 순례자의 욕망은 확장되어 가는 대영제국의 이미지와 자신의 이동성을 동일시함으로써, '물질적인 영토 소유가 가능하게 해준 물질적 상상력'에 의해 규정되었다. 반면, 제국의 힘을 잃어가던 프랑스인 순례자들은 '교화의 사명'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과학적인 현실보다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현실을 탐구하는데 집착하게 된다.[1] 이런 가운데, 동양과 성(sex) 사이의 연상은 더욱 강화되고, 성적 결합의 욕망은 동양을 그러한 가능성이 가득한 광대한 장소로 그려낸다. 사이드에서 인용된 네르발의 여행기는 이러한 예의 하나이다.

> 나는 우리들의 최초의 고향인 이 성스러운 대지의 솔직한 소녀와 결혼하여야 한다. 나는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시와 신상이 흘러온 이 인류의 삶의 샘에 몸을 적셔야 한다! … 나는 인생을 소설처럼 구성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여도 자신의 주위에 드라마를, 절정을, 흥미를, 곧

---

1) 그러나 남성들에 의해 쓰여진 모든 여행기가 모두 동일한 형태의 서사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식민지와 맺는 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갖게 된다. 프랫(1992)은 1810년과 1820년대, 그리고 1850년대 이후에 대규모로 남미 지역에 진출한 영국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 남성의 여행기를 "자본주의 선동자(capitalist vanguard)"담론으로 규정한다. 당시 광산업이나 철도 사업 등 자본주의적 물적 욕망에 추동되어 피식민 지역에 진출했던 유럽 남성들은 탐험가나 여행자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서구 타자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탐험가나 여행가 담론이 새로운 발견물들을 미화하고, 사색하는 낭만적 정서로 가득했다면, 자본주의 선동자로서의 이들의 여행기는 정복과 성취라는 목적 지향적 서사로 구성되며, 감정적인 부분이 거의 배제된 형태로 기술된다는 것이다.

행동을 만들고자 하는 활동적이고 결단력이 풍부한 주인공과 같은 상황에 나아가서, 자신을 두고 싶다"(네르발의 〈동양여행〉, 사이드 1978/2000: 326에서 재인용).

식민 역사는 유럽 남성과 본국의 여성,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받는 여성들과의 차별적인 섹슈얼리티의 기호를 구축해냄으로써, 지배와 복종의 권력관계를 구현해냈다. 밀즈(Mills)는 식민제국의 사업이 남성적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내부의 여성을 '순결'의 대상이며, 가정의 상징으로 재현해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제국주의 사업의 '기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1991: 59).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남성들은 식민지 여성들을 '성적으로 방종한 여성'으로 구성해나가면서 그들의 성적 환타지를 구성해갔다. 즉 '하렘'과 '목욕탕'에서 성애적인(sexual) 모습을 한 여성으로 대표되는 비서구의 여성과 자신의 집 안방에서 꽉 조이는 코르셋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옷으로 온 몸을 덮은 채 다소곳이 앉아 있는 빅토리아 영국의 여성들의 대조적인 이미지는 서구 남성의 제국주의적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이미지가 된다.

성적 은유가 식민 담론의 주요한 메타포가 되고 있다는 많은 비판적인 연구물들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생산하는 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철저하게 간과되어왔다. 식민주의자들이나 사이드와 같은 탈식민 이론가들 모두, 당시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식민주의에 연루되어 있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실제로 당시 여성들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글을 쓰고, 이런 글들이 상당히 폭넓게 읽혔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간과되었고, 여성이 어떻게 행위자로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무지'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식민담론과 탈식민 담론 모두 남성 중심적 서사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스튜어트 홀이 지적한대로, "탐험, 정복 및 지배의 언어는 바로 성(gender)에 의해 강하게 특징지워졌고, 성적 이미지들에서 그 대부분의 잠재력을 끌어냈다면"(1996:

220), 다른 성별 경험을 가진 서구 여성들은 자신의 글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 식민 담론과 '차이'를 드러냈는가? 본 논문은 당시 서구 여성 여행가들의 쓴 소설, 여행기와 그림이 당시 쓰여진 남성들의 여행기와 어떤면에서 재현 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최근 페미니즘 논의가 탈식민 논의와 결합되는 지점을 분석하고자한다.

2. 식민 담론과 여성주체의 '복원'

식민화는 제국주의적 침략을 통한 수탈만을 일삼은 것이 아니라, 식민제국의 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건설하며, 식민지배/피지배자들의 상상력, 정서, 세계관을 바꿔 놓은 문화 정치학을 통해 이루어졌다(Pieterse 1997). 이때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진보, 진화, 근대성, 과학이라는 개념은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차이'를 설명해내는 주요한 은유가 되면서, 식민 제국의 이미지를 구성해냈다. 식민 통치는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과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동시에 식민지인들의 문화의 특정 부분을 '전통'으로 규정하고 박제화했다. 식민지 권력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식민지인'들과 '식민지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맥하면서 융합된다. 그러므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도 독립 국가들은 무엇이 정확히 '외래적'이며 '식민제국의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탈식민 운동은 명확한 초점과 대상을 구성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탈식민 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식민제국인들과 피식민지인들 모두의 인식 속에 자리잡은 식민지적 상상들을 해체하는 것이다(Pieterse 1997). 태혜숙(2001)이 지적했듯이, 탈식민주의는 "형식적인 독립과 해방의 이면에서 우리의 의식구조를 더욱 근원적으로 틀지워온 식민담론을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하고자"(33)하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논의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독립 국가의 지식인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가장 중심적인 방법론은 식민주의 담론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었고, 새로운 방식의 역사적 재현을 구성해내는 것이었다(윤택림 1995). 페미니즘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탈식민의 정치학은 '식민화'의 과정을 역사화하고, 서구 또는 비서구 여성의 주체들을 '복원'시키고자하는 것이다. 식민권력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초기의 대표적인 논의는 '식민지배로 인해 제3세계, 또는 비서구 식민지 여성의 지위가 퇴보되거나 여성의 힘이 쇠잔해졌다'는 쇠잔 또는 쇠퇴서사(declension narratives)였다(Shoemaker 1991; Bulbaek 1998). 이러한 서사에 따르면, 식민지의 여성들은 식민 지배 이전에는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백인 남성의 가부장적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일차적으로 제국주의 권력의 가장 큰 '희생자'이다. 예를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지역의 원주민 여성들은 식민지 시대 이전에는 탐험가, 정치적 또는 영적 지도자로서, 또한 경작자와 전사로서의 역할을 했다. 또한 몸에 대한 자율권을 누리면서, 재생산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강간이나 아내구타로부터 자유로웠다. 원주민 남성들이 이러한 것을 침해하면 크게 벌을 받았다. 그러나 '문명화'와 '기독교화'를 사명으로 지배를 정당화했던 식민권력의 선교사업과 정부 정책 때문에 여성들은 그런 자율성을 상실했다(Bulbaek 1998: 19-21). 이는 단지 서구에 의한 비서구의 식민화 과정에서만 생겨난 일이 아니었다. 불백(1998)에 의하면, 동양에 의한 다른 동양 사회의 식민화도 여성을 무력화시키며 지배를 관철시켰는데, 18세기 이전 베트남 여성들은 전쟁 지도자, 비평가, 시인, 풍자가로서 역할을 했지만 중국의 유교주의와 프랑스의 식민주의에 의해 이 자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쇠퇴서사의 중심적인 역사관이 모든 것이 백인에 의해 자행된 식민주의의 탓이라는 소위 '비난의 정치학(the politics of Blame)' (Said

1978/2000)의 성향을 지닌다면, 식민 지배가 피식민 사회에 착종시킨 '근대성'은 오히려 전통적 억압을 받았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을 분석한 많은 연구물들은 여성들은 식민 지배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배'를 경험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Abu-lughod 1998; Narayan 1997). 그러므로 자생주의에 기반한 '전통'의 복원과, 식민지 근대가 제공해 준 '발전' 사이에서 입장을 선택하기보다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한 혼종화된 실천(hybrid practices)을 하여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즉 과거의 황금시대를 복원하는 담론이 현재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선택되는 여성주의적 실천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구체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생주의나 민족주의적 남성 주체의 열망과 합해져서 현재의 성별 권력 관계를 무화시키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2)]

식민지적 상상력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식민 지배의 역사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단순한 서구-비서구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맥락화된 해석을 하는 것이다.[3)] 즉, 페미니즘 내에

---

2) 이후의 탈식민지 페미니즘 논의는 식민 권력와 피식민지의 가부장적 권력이 충돌하면서 성별 권력이 재편성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 주목한다. 즉 식민제국은 본국에서 작동하던 성별 위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강화하면서, 여성들의 자율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피식민의 남성들과의 가부장적 '공모'를 통해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켰다. 즉 인도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이옥순(1999)과 양현아(1998)의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피식민 남성들은 그들 문화 속에 잠재되어 흐르던 남성주의적 시각을 복원하여 때때로 식민주의자와 손을 잡고, 여성들의 자율성과 권력을 없애는데 공헌했다.

3) 1980년대 이후 페미니즘 내부에서 등장한 식민화에 대한 비판은 소위 제3세계 출신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제기된 소위 '제3세계 페미니즘'에 의한 것이다. 이는 서구의 남성중심적 제국주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서구 페

서 진행된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들은 한편으로는 주류 페미니즘의 백인 중심주의과 중산층 중심주의를 성찰적으로 비판하여 이를 해체하는데 기여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연구들을 이끌어냈다. 식민제국과 피식민지 내부에서 모두, 성과 계층, 인종, 지역적 특성에 따라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과 모순들을 드러내어,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탈식민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간디 1998).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페미니즘의 영역은 식민지 시기 서구/비서구 여성이 쓴 여행기를 새로운 탈식민담론으로 부상시켰다. 여성 여행기에 대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타자에 대한 지식을 통해 서구 권력이 구축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관심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미니즘 담론이 소위 비서구 제3세계 여성을 그려내는데 작동하는 '식민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연구자의 한 사람인 모한티(Mohanty 1991)가 사용하는 '식민화(colonization)'란 개념은 일차적으로 담론적 과정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써, 서구 페미니즘 내에서 저작이나 인용의 방식을 통해 주조되는 제3세계 여성에 대한 '재현'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서구 여성주의 담론에서 비서구여성들 사이의 경험적 '차이들'은 무시되고, 그들은 서구 여성의 '타자'로서 역사적으로 동질한 억압을 받는 '평균적 제3세계 여성'으로 담론화된다. 제3세계 여성을 동일하게 "억압받는 집단"으로 범주화하는 재현양식은 서구 여성만이 인간주의를 목표로 하는 저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설정되며, 제3세계 여성 모두는 대상화된 주체의 일반성을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설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론과 글쓰기의 방식은 서구 페미니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분석을 하는 제3세계 페미니스트에게도 유효한 비판이 된다. 즉 어떤 주제에 대한 지식 생산은 정치적, 담론적 실천이며 따라서 목적 지향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다. 탈식민 페미니즘의 인식론을 구축하는데 역할을 한 모한티의 비판은 여성주의적 학자적 실천도 권력 관계를 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권력에 대해 저항하고, 반대거나 때로는 지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젠더가 시, 공간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내는가에 대한 오래 된 관심에서부터 고무되었다. 또한 1980년대 인류학내에서도 타자의 특정한 '재현' 방식이 타자를 '억압' 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적 성찰이 주도하게되면서, '재현' 과 권력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더글라스 로빈슨(1997)은 1980년대 인류학과 민족지학에서의 이런 경향의 영향으로 포스트식민주의 '번역' 의 필요성이 부상하면서 식민 제국의 역사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져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호미 바바를 인용하면서 포스트식민주의 연구의 핵심은 이분법의 해체와 혼종화를 통해 서구를 '중심' 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서구를 지방화' 하는 기획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자는 서구를 지방화하는 기획은 식민지 제국, 즉 서구 내부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주변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서구의 여성들은 그들의 타자인 비서구 여성들과 일정 정도 동질한 '경험' 을 했을 뿐 아니라, 피식민여성으로서 이들의 주변적인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서구 남성들과는 다른 시각과 입장을 견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여성들이 쓴 소설이나 여행기가 탈식민담론의 주요한 텍스트로 등장하는 것은 이들 여성들이 '동양적 타자' 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사실과 당시 자신들의 경험하던 '성적 억압' 을 식민지 여성이 경험하는 성적 억압과 비교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하는 여성들은 당시 '여성화된 행위 양식과 예의' 를 강조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 여성성' 라는 지배적인 질서로부터 벗어나, 야만이나 성애적 과다함으로 재현되었던 비서구 타자와의 '접촉' 을 시도한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그러나 공간으로 구획된 성별성의 한계를 넘어섰지만, 동시에 제국의 권력을 다른 공간으로 운반하는 사람들로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냈다. 프랫(1992)이 지적한대로 이러한 접촉지대(contact zone)에서 발생한 역사적 경험을 기록한 여행기 등을 통해 우리는 제국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비판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제국의 권력이 의도대로 집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과 이질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을 역사 속으로 복원해낼 수 있다.

서구 여성들의 여행기는 남성/여성, 식민제국인/피식민인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한다. 왜냐하면 식민담론과 젠더 담론의 교차는 모순적이고 유동적인 주체의 입장(positioning)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구여성은 '중심'과 '주변', 정체성과 그 변형을 동시적으로 구성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식민담론의 영웅 서사나 향수 서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타자'와 관계 맺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기존의 서구 중심성 대 비서구 타자성의 이분법을 해체한다. 식민 시대의 '담론'들은 단일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았으며,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부분을 담고 있었다. 특히 섹슈얼리티가 식민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이미지로 작동될 때, 남성적 욕망에 의해 추동되어왔던 식민담론이 지배적이었다 하더라도, 식민제국 여성이나 피식민국의 여성들에 의한 글 쓰기는 이러한 식민담론에 균열을 일으키는 '차이'를 만들어냈다. 본 논문은 제국주의의 절정기로 불리는 19세기 중엽이후에 쓰여진 서구 여성들의 소설, 여행기, 그림 등을 분석한 최근의 페미니즘 비평들을 통해, 어떻게 당시 여성들이 피식민 '타자'로서 식민지 여성을 인식하고,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지배적인 식민담론, 즉 식민지 여성에 대한 과잉 성애화 담론에 균열을 일으켜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경계'를 넘어가는 서구 여성의 출현

프랫(Pratt 1992: 170-171)은 1828년에 이르면 유럽 여성 여행자들이 출판한 여행기들의 수가 증가하는데, 이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꽃피웠던 유럽 페미니즘의 영향에도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메리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나 레이디 몬테규(Lady Montagu)가 대표적인 여성들로서 그들은 페미니스트로서 여행기를 썼다. 여행하는 여성들은 나름대로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관습들에 직면하여 개별적인 투쟁을 하면서,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하는 당시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여성들이다(Mills 1991). 그러나 영국 등 유럽 여성들이 대규모로 식민지 영토에 들어오게 된 것은 거의 19세기 말엽 이후가 되면서부터였다. 서구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 제한되었던 자신의 위치로부터 벗어나 피식민국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선교활동 등과 같이 고귀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나, 결혼한 남성의 동반자로서였다(Blunt 1994: 52-53). 여성들의 '의무'는 공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의무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 여성 슬레서(Slessor)의 경우, 어머니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장남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기를 희망했지만, 그가 뉴질랜드에서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일을 성취할 수 없었다. 슬레서는 이런 어머니의 희망을 따르기 위해, 칼라바(Calabar)에 오게됐다. 래리모아(Larymore)는 식민 관료인 남편의 부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남편을 따라왔고, 킹슬리(Kingsley)는 죽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오게됐다. 킹슬리는 아버지가 수행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아프리카의 희생 의례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왔다(McEwan 1994: 78-79). 오히려 여성이라는 조건이 원주민 남성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여성들은 커다란 규제 없이 원주민 여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여성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있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동안, 몇몇 예외적인 여성을 제외하고는 서아프리카를 여행한 여성은 없었다(McEwan 1994: 74). 아프리카는 "백인 여성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서구 여성이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은 점이 서구 남성들로 하여금 원주민 여성들에 대한 성적 욕망을 지속적으로 실현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검은 대륙'과 '야만인'으로 묘사됐던 서아프리카는 제국주의자들의 영웅적인 행적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장치가 되었고, 영국의 탐험가들에게는 빅토리아의 도덕성의 규제하는 온갖 제약들이나 영국 여성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성적 놀이터'로 제시되었다.

여성의 이동성은 또한 법적으로 규제되었다. 예를 들어 1652년 동인도 회사는 자국의 식민화된 영토에 유럽 여성이 이주해 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집행했고, 1870년까지 네덜란드의 여성들이 인도네시아로 이민 오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는 전적으로 네덜란드 식민제국의 남성의 역사였으며, 그들과 원주민 여성들의 관계가 주도적인 젠더 관계였다(Taylor 1996: 229). 1870년 농업법이 통과되면서, 이주가 가능한 지역, 경제활동, 수용 인원 등에 대한 모든 규제들이 풀렸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이주도 허용되었다(Taylor 1996: 231). 무엇보다도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개설과 증기선박의 탄생은 이전에 열 세 달이 걸리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삼주 내로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의 이주를 가능하게 했다. 1870년과 1880년 사이, 1,000명의 유럽 남성 당 123명의 유럽 여성들이 자바에 거주하게 되었다. 제국주의적 침략이 절정에 이르게 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엽까지 상층부 유럽인들의 피식민지로의 여행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문명화된' 북 아프리카나 동양은 휴가를 보내기 좋은 여행 장소로 추천되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구 여성들에 의해 쓰여진 여행기들도 이 지역 여성들에 대한 정형화된 묘사를 이끌어냈다. 한편으로는 이들을 일부다처의 복혼제 결혼제도에서 억압받은 부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남성들의 성적 대상자나 성적 노예로 묘사했다. 또한 일부의 서구 여성 여행자들은 남성 탐험가나 인류학자처럼, 자신들을 객관적이고 과학

적인 관찰자로 위치 짓기 위해, 감정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남성적 목소리'로 비서구여성을 다루기도 했다. 동시에 여성 경험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경험은 피식민여성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를 이끌어 냈다. 다음에서는 소설과 여행기를 분석한 페미니스트 연구들의 예를 통해 어떻게 비서구 여성들이 '탈성애화'된 방식으로 재현되었는지 다루고자 한다. 맥이완(McEwan 1994), 블런트(Blunt 1994), 밀즈(Mills 1993) 등이 분석한 메리 킹슬리(Mary Kingley)와 메리 슬레서(Mary Slessor)의 여행기를 택한 이유는 이 여행기의 저자들이 당시 가장 널리 읽혀졌고 이에 대한 분석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서 타일러가 분석한 자바의 '느야이' 담론과 레이나 루이스(Reina Lewis 1996)가 분석한 헨리에트 브라운(Henriette Brown)의 여행-그림(travel paintings)들의 예를 들어 어떻게 여성이라는 '작가적 위치'가 당시 주도적인 오리엔탈리즘 담론 내부의 '성적 환타지'를 해체시켰는지의 예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4. 식민지 여성의 '탈성애화'(De-sexualization) 담론

서구 여성들의 글쓰기는 비서구 식민지 여성들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재현해낸 것은 결코 아니며, 일관성이 있는 언설을 구성해낸 것도 아니다. 조선 시대 서구 여성 선교사의 기록을 분석한 강선미(2002)는 이들 여성들이 성별, 인종, 계급 관계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그에 의하면, 어떤 여성은 서구 문명을 부정하고 식민지 문화를 전적으로 옹호하기도 하고, 식민 권력은 보지 못하지만 성별 위계 질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식민지 문화의 열등성을 인정하면서도 서구의 인종 차별주의를 비판하는 여성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맥락화된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정복과 지배의 욕구를 남성의 성적 욕망으로 은유

화시켜내면서 구성되었던 식민지 여성에 대한 과잉화된 '성애화'(sexualization) 담론에 대한 '균열들' 역시 일관적이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식민 담론은 식민지 서양과 그 외의 사회들간의 "관계를 재현하는 특수한 방식"(홀 1996: 203)이며, 사실과 환타지의 융합에 의해 형성된 지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서구 여성들을 탈성애화하는 글쓰기는 사실과 환타지의 영역을 분리해내는 일이며, 여성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 경제적 조건들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들은 1) 식민지 '조건'과 성적 억압에 대한 이해; 2) 현지인 되기를 통한 상대주의 관점에 대한 이해; 3) 일상적인 여성 경험과 '가정성'(domesticity)에 대한 강조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다음은 그런 예들을 보여주는 여성주의적 분석들을 제시한다.

1) 유혹과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성적 억압의 희생자로

스톨러(Stoler 1996)는 19세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의 유럽인 가정에서 현지 여성 보모들이 중산층의 아이들에게 일으킬 '오염'과 '감염'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성적으로 위험스러운 현지 여성들과 유럽의 도덕성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된 유럽 여성들 사이의 이분화는 당시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공포스러운 의존과 위반을 막아내기 위한 제국의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성들간의 위계화였다. 현지 여성들은 성적 유혹자로서 유럽 남성들을 현혹시키거나, 보모로서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의 인종적, 국가적 정체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상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력은 유럽 남성의 성적, 국가적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었고, 유럽의 여성들은 현지 여성들에 대해 다른 방식의 현실인식을 갖고 있었다. '느야이 다시마'(Nyai Dasima)가 등장하는 1896년부터 1970년대의 소설과 영화를 분석한 타일러(Tylor 1996)의 연구는 작가의 '성별' 위치가 어떻게 다른 방식의 재현 체계를 구성해나

가는가를 잘 보여준다. 느야이(Nyai)는 식민지 시기 자바 현지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써, 미혼의 유럽 남성을 위해 가정부 역할을 하는 여성이지만, 일반적으로 '정부'나 '첩'으로 의미화된다. 식민지 시기 쓰여진 소설 속에서 느야이는 유럽과 토착민을 연결하는 주요한 성애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유럽 남성들은 초기에는 주인과 노예-첩(slave-concubines)의 관계로 지역 여성과 성적 결합을 가졌다. 1860년 식민 정부에 의해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백인 남성과 현지 여성은 고용주와 임금 노동자로서의 계약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갔다.[4)]

재미있는 현상은 유럽 남성들의 소설이나 여행기 등은 느야이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악'과 '불온한 것'으로 그려냈다는 것이다. 즉 이 여성들은 '구나구나(guna-guna)'라는 검은 마술을 사용하여 남성을 함정에 빠뜨리고, 정신 없게 만들거나, 남성이 이러한 어려움에서 탈출하여 유럽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면 남성들을 독살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즉, 자신들을 현지 여성들의 성적 유혹과 주술로 인해 무력해지는 인물들로 그려냈다. 이런 식의 재현은 현지 여성들의 과도한 성애화를 부각시킴으로써 식민지 조건에 의해 구성되는 인종적, 성적 위계 관계와 그에 따르는 강압적 성적 결합의 현실을 무화시켜내는 것이다.

타일러는 이에 비해 당시 이주해 온 유럽 여성들의 글이나 소설에 등장한 느야이는 백인 남성의 성적 억압의 희생자로 그려졌고, 백인 고용주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기 쉬운 취약하고 순진한 '첩'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Taylor 1996: 233). 실제로 식민지로 이주

4) 백인 남성은 현지의 하층부 여성과 성적 결합을 이룰 수밖엔 없었는데, 이는 자바 지역의 상류 계층은 회교도로서 결혼 안한 딸을 외부와 철저히 격리시켰기 때문이다. 백인 남성들은 초기 노예-첩이었던 현지 여성들의 자손인 유라시안 여성들과의 결혼을 통해 상층 계층을 이루어나갔다(Taylor 1996).

해 온 유럽의 젊은 부인들은 식민지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총각 시절에 가졌던 '성적 결합'에 대해 알게 되고, 현지 여성과 원하지 않는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백인 '부인'과 유색인종의 '하인이며 첩'인 느야이는 유럽 남성의 성적 정체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필수불가별하게 경쟁적인 관계로 배치되지만, 대부분의 여성 작가들은 '식민지적 조건'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느야이가 겪는 다양한 억압의 경험을 언어화해냈다고 한다. 즉, 느야이는 백인 남성 고용주에 의해 해고당하고 버려질 위험성에 노출된 존재로, 홀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기르거나, 유럽인들에 의해 자신의 아이를 빼앗기는 여성으로 그려졌다고 한다. 즉, 느야이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백인 남성 작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5] 혼전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믿었던 유럽의 여성들에게 느야이는 '성적으로 방종한 유혹자'라기보다 특수한 식민지적 조건 때문에 여성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성적 억압을 받는 희생자로 이해되었다. 아이들의 교육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던 당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했던 유럽 여성들은 현지인 여성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떼어내는 당시 백인들의 정책을 반대했다. 느야이를 불쌍한 어머니로 보는 감정적 이입을 통해, 서구 여성들은 느야이를 비성애화된 모성적 인물로 그려낼 수 있었다.

2) '내부인의 관점'에서 본 아프리카 여성들

"킹슬리양, 제가 생각하기에 아프리카 여성들은 인간 중에 가장 열악한

---

5) 네덜란드의 여성 작가들도 이러한 '식민지적 조건'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무엇보다도 유럽 사회가 느야이와 그 아이들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1881년부터 1940년까지 인구의 15%가량인 4만 8천명 정도가 유럽 남성에 의해 승인된 '비합법적인 아이들'로 등록이 되었고, 유럽 가정에서 키워졌다(Taylor 1996: 233).

인류의 표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은 킹슬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행자들이 아프리카 여성의 지위를 굉장히 과장해왔고, 여행자의 대부분은 이런 것을 판단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었던 남성들이지요. 여성으로서 저는 그들과 자유롭게 어울렸고, 그들의 가정 생활을 연구했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대체로 결혼한 아프리카 여성들이 영국의 대다수의 부인들보다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McEwan 1994: 83)

메리 슬레서(Mary Slessor)는 아프리카를 여행한 '예외적인' 여성들 중 한 명이었다. 스코틀랜드 장로회 선교사인 메리 슬레서는 1876년부터 1915년까지 40년 동안 나이지리아의 동남쪽에 있는 칼라바(Calabar)의 숲 속에서 살았다. 그는 외국에 체류하는 여행객으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았고, 칼라바를 '집(home)'으로 불렀으며, 자신을 그 지역의 주민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주로 여성선교사 잡지(Women's Missionary Magazine)에 많은 글을 기고했던 잘 알려진 여성 선교사였다.[6] 선교를 위해 서아프리카에 온 슬래서의 경우는 '거의 현지인이 되어버린 유럽 여성'으로 유명하다(McEwan 1994).[7] 교회는 그에게 아프리카 내륙을 여행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유럽 여성' 답지 않게, 아프리카 스타일의 오두막에서 사는 것에도 반대했다. '현지인 되기'를 실행했던 슬래서에게 아프리카의 여성들이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이미지는 사실과 달랐다.[8]

---

6) 선교사 잡지는 매달 27,800부(1902년)가 발행되었고, 주로 여성 독자들에게 많이 읽혀졌다고 한다.

7) 칼라바를 '집(home)'으로 명명했던 슬래서는 유럽의 교회가 자신을 다시 영국으로 불러들일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몸이 아프다거나 아프리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숨겼다고 한다.

8) 맥이완의 다른 예는 래리모아의 여행기에서 드러나는데, "The Emir of Bida의 하렘을 방문한 래리모아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웃고, 손뼉을 치며, 끊임없이 인사를 교환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성적 방

억압, 가난, 복혼제, 인간 희생, 식인풍습, 폭력 등으로 점철되었던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와 최악의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가 식민담론의 주류를 이루었던 당시, 서아프리카를 여행했던 메리 킹슬리 또한 아프리카 여성들이 가장 억압받은 인종이라는 사실을 반박했다. 메리 킹슬리는 1893년부터 94년 사이 서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쓴 그의 여행기 서아프리카로의 여행(*Travels in West Africa*, 1897)를 통해 가장 특이한 여성 여행자의 한 명으로 손꼽혔던 영국의 여성이다(Mill 1991: 153). 그녀는 1893년부터 1895년까지 18개월 간 서아프리카에 머물렀다(McEwan 1994: 74). 그는 1890년대 서아프리카로의 두 번의 여행을 통해 두 권의 여행기와 수많은 글들을 발표하고, 강연을 했던 유명한 여성이었다(Blunt 1994: 53).[9] 그는 서구인들을 동반하지 않고, 직접 배를 타거나 걸어서 서아프리카를 여행했고, 주로 팬(Fan) 부족 남성들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여행비용을 마련했던 여성이다. 맥이완(McEwan)은 메리 슬레서와 메리 킹슬리가 '인류학적인 거리'를 두고, 현지 여성들을 봐라보았다고 주장한다. 메리 슬레서는 자신을 현지 여성의 고통과 동일시하면서, 아프리카 여성을 복혼제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동맹자로

종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백인 여성은 보고 요란스럽게 흥분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세련된 특징으로 보이는 그들의 완벽한 예의로 그들은 자제했다"(McEwan 1994: 85)라고 적고 있다.

9) 메리 킹슬리(Mary Kingsley)의 대표적인 여행기는 *Travels in West Africa*(1897), *West African Studies*(1899), *The Story of West Africa*(1900)이 있다. 전자는 그의 두 번째 서아프리카 여행의 기록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들을 위해 쓴 여행기이고, 후자는 그의 정치적 제안들(political proposals)과 연구 결과를 담고 있는 책이다(Blunt 1994: 55). 킹슬리의 저작은 광범위하게 읽혀졌는데, *Travels in West Africa*는 초판 1500부가 발간된 이래, 1904년까지 여덟 번의 재판을 통해 총 7,500부가 팔렸다. *West African Studies*는 초판 2,000부, 1901년에 1,500부가 발행되었다.

보았다(1994: 76). 메리 슬레서는 영국 식민제국의 자민족중심적인 태도를 비판함과 동시에 서 아프리카의 '야만적인' 풍습을 없애는데도 일차적인 관심을 보였다. 킹슬리는 이와 반대로 '복혼제에서 억압받는 아프리카 부인들'이란 식민 담론을 반박하고, 아프리카 여성들이 결혼 관계 내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복혼제는 여성에게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McEwan 1994: 84). 즉, 복혼제는 여성 개인에게 가사 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주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이는 동안 남편들의 성적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유럽 여성들에 비해 오히려 아프리카 여성들이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메리 슬레서와 메리 킹슬리는 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보고, 아프리카 사회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류학적 방법론을 취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에 도달하려고 했다. 그들은 식민 담론의 주요한 구성물인 환타지를 지워버림으로써, 타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려고 했다. 메리 킹슬리의 여행기를 분석한 페미니스트들은 메리 킹슬리의 여행기가 다른 영국 여성들의 여행기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담론의 안과 밖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즉, 한편으로 그들은 메리 킹슬리가 서아프리카 풍습에 대한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 도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제국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관찰한 것과 말한 것에 신뢰를 부여하며, 객관적인 관찰자처럼 자신의 언설을 '권위 있는 자'의 입장으로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밀즈(Mills)는 킹슬리의 여행기가 모험하는 남성 영웅자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분석들에 반대하여, 여전히 자신을 '남성'으로 지칭하거나 동일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여성을 묘사하는데 있어서도 '성애적'인 방식을 취했다(1991: 155-167)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킹슬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프리카의 고유한 문화가 가진 이점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제국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녀는 여행기와 저널을 통해, 인종적으로 타자화된 아프리카 여성들이 경험하는 억압을 영국 여성들이 영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성별화된 타자로서의 경험과 연결시키면서 '여성으로서 공통된 억압'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켰다(McEwan 1994). 또한 그녀는 아프리카의 '유럽화'가 아프리카 여성들이 누리던 권리를 박탈하여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가 동등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아프리카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 그는 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간접 통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즉 재산이 남편에게 양도되는 빅토리아 제도의 도입과 유럽화는 현지 여성이 가진 권리와 자유, 일상적인 영향력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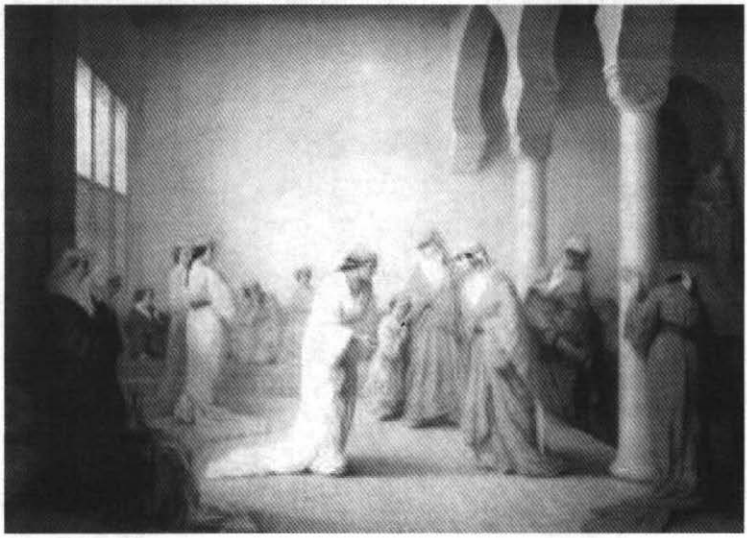
서구 여성은 본국의 규제를 벗어났지만, 식민지에 정착한 유럽인들이 가졌던 성별 인식과 성별 공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당시의 남성 여행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참여관찰자로서의 입장과 시각을 담지함으로써, 비서구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동일시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삶의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해내는 '식민 권력'의 연루성을 비판했다.

3) '하렘'의 탈성애화

쇼핫과 스탬(Shohat and Stam 1994: 164)은 관음증적인 인류학적 기록과 여행기, 할리우드 대중 영화 등에서 가장 집요하게 등장하는 비서구 타자에 대한 이미지를 '하렘 구조'(harem structures)라고 명명한다. 하렘은 동양의 권위주의적인 전제 군주 남성과 그에게 독점된 성적으로 유혹적인 여성들이 거주하는 '금지된 공간'으로써 서구인들의 상상력의 중심에 놓여있었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여성화(feminization of the Orient)시키는 담론체제이다. 주도적인 동양의 이

미지는 전제군주의 노예나 첩으로서 여성들의 이미지였고, 여기에는 언제나 성적인 과다함과 환상이 내재돼 있었다. 터키를 방문하고 쓴 시각적 보고서(visual reports)로서의 영국의 여행화가 헨리에트 브라운의 그림을 분석한 루이스(Lewis 1996)는 브라운이 그린 그림들이 당시 주도적인 동양에 대한 이미지들에 균열과 이질성을 드러냄으로써 '논쟁적인' 인물이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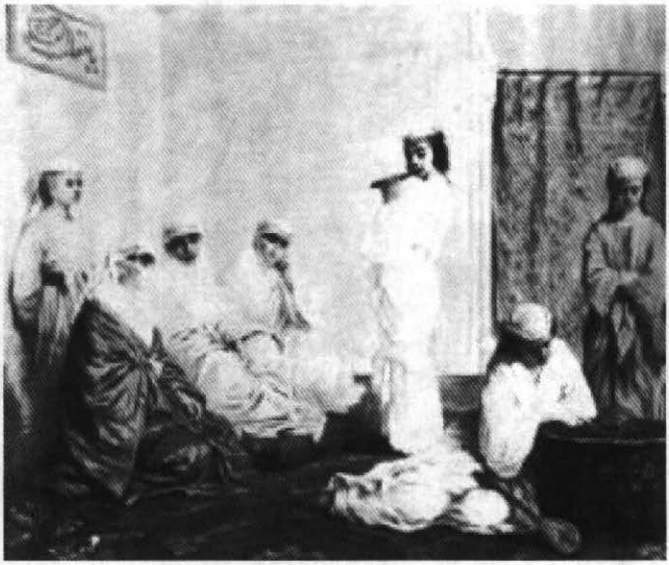
브라운은 당시 영국과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오리엔탈리스트 아트(Orientalist Art) 영역의 여성 아티스트였다. 그는 초기에 주로 수녀원 등을 무대로 종교화를 그렸으나, 일반적으로 내부(Interiors)로 불렸던 두 개의 작품, 즉 방문(*Une visite*, interieur de harem; Constantinople, 1860, 그림 1)과 플룻 연주자(*Une joueuse de flute*, interieur de harem, Constantinople, 1860, 그림 2)이 1861년 파리 갤러리에서 전시된 이후, 오리엔탈리스트 아티스트로서의 명성을 얻는 동시에 수많은 논쟁



〈그림 1〉 Lewis 1997, Plate 13에서 발췌,
방문, Une Visite (Henriette Browne, 1860)

을 불러일으켰다(Lewis 1996: 109-110). 터키를 방문하고 그린 일종의 여행 그림인 두 작품은 기존의 '하렘'의 이미지와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것이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에서 오리엔탈리스트 아트는 인기 있는 영역이었는데, 이는 순수예술을 통해 제국주의 프로젝트를 관철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결합된 때문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색감과 창의성을 제공해주는 '동양'과의 연계가 화가들로 하여금 내용과 기술면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에서 오리엔탈리스트 아트의 시작은 데캉(Decamps 1813-1860)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는 임파스토(impasto: 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화법)와 키아로스큐로(chiaroscuro: 명암법)를 이용하여, 동양을 화려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묘사해냈다. 영국의 오리엔탈리스트 아



〈그림 2〉 Lewis 1996, Plate 12에서 발췌,
플룻연주자, Une joueuse de flute (Henriette Browne, 1860)

트는 이보다는 비서구 타자들이 보여주는 풍습과 인류학적 삶의 연대기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10] 1860년까지 프랑스의 오리엔탈리스트 아트는 제롬(Jean-Leon Gerome)에 의해 정형화되면서 발전되어왔는데, 그의 그림의 주도적인 이미지는 현란한 에로티시즘으로서의 동양이었다(〈그림 3〉과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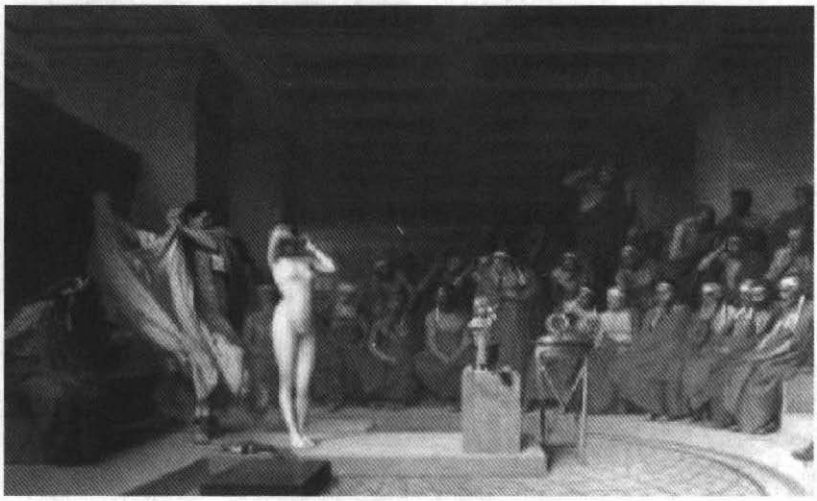
제롬의 관능적인 캔버스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법에 대해 극찬하게 하고 아울러, 그가 선택한 그림의 주제들이 생산해내는 동양의 '부도덕성'에 대한 공포를 일으켰다.

유럽의 오리엔탈리스트 아트는 이렇게 혼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림 5〉에서 보여지듯, 여전히 하렘숭배(cult of harem)가 주요한 환타지로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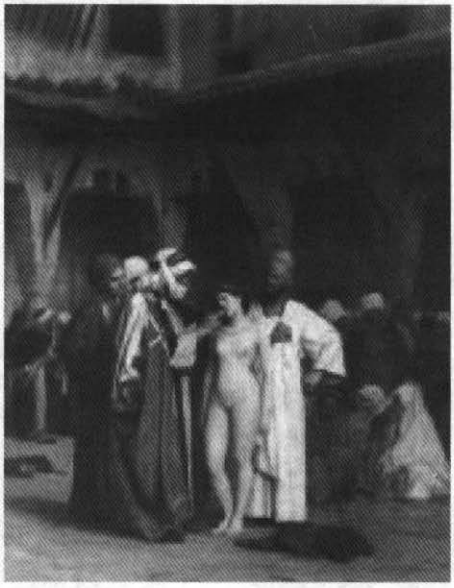
당시 서양인들에게 동양의 하렘은 술탄 같은 지위의 남편들이나 남성시종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지역이며, 철저하게 격리된 공간이었고, 일부다처제의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신비스러운 비전으로 남아있었다. 무슬림 여성들의 감춰진 얼굴과 몸을 보겠다는 소원과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에 대한 환상 자체가 오리엔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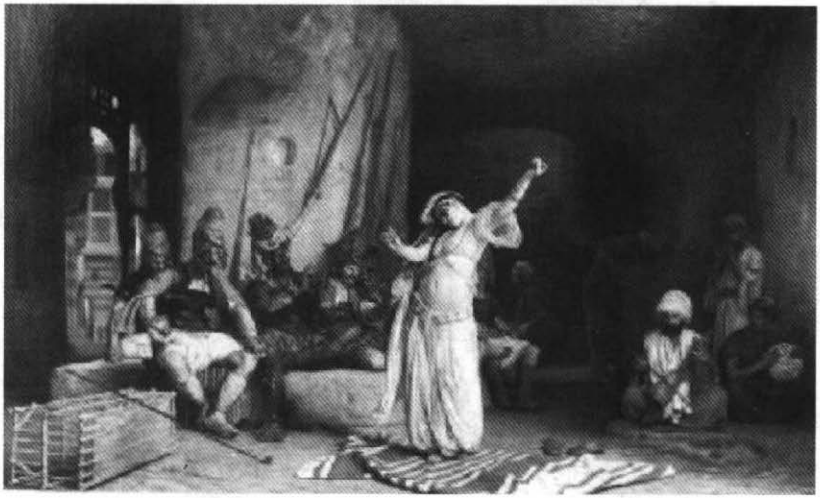
10) 영국의 경우 오리엔탈리스트 아트의 발전은 프랑스보다 미약한 편이었고, 프랑스에서만큼 성적으로 과도한 주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루이스(John Frederick Lewis)가 있는데, 그든 1842년부터 1851년에 카이로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진정성(authentic)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거의 사진처럼 사실적인 수채화 기법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고, 자세한 묘사와 그 정확함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일상적 삶 속의 '옷을 입은' 동양 여성을 그렸고, 이점에서 브라운과 일치하지만, 그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동양에 대한 환상과 연관된 사치와 엑조티카(exotica), 즉 가젤, 풀(pool), 젊은 흑인 남성 시종, 섬세하게 아로새겨진 유리창과 바닥 등으로 상징되는 것들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그는 동양 여성을 수동적인 또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존재로 그리진 않았지만, 낮잠(The Siesta)이라는 작품에서처럼, 잠자는 여성의 흐트러진 모습 속에 가슴을 드러내 보임으로서 여전히 성애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3〉 Lewis 1997, Plate 5에서 발췌, 아레오파고서앞의 프리안, Phryne Before the Areopagus (Jean-Leon Gerome, 1861)



〈그림 4〉 Lewis 1997, Plate 11에서 발췌, 노예시장 Slave market (Jean-Leon Gerome, 연도 미상)〉



〈그림 5〉 Lewis 1997, Plate 34에서 발췌,
무희의 춤, Dance of the Almeh (Gerome, Jeon-Leon 1863)

리스트 아트를 추동해온 주요한 동기였다. 또한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그들을 추동시켜왔던 흥분은 남성이 부재한 공간에서 여성들간에 벌어지는 레즈비언적 성애에 대한 상상이었다 (Shohat and Stam 1994).

루이스는 오리엔탈리스트 아트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지만, 여성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동양의 술탄의 지위를 '시각적으로 차용' 하여 서구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재현방식이었음을 강조한다. 하렘의 여성들은 오로지 남성을 맞기 위해 목욕을 하고, 벗을 몸을 하고 있는 집단으로 그려졌고, 바로 이것은 금지된 것을 훔쳐보는 시각적 쾌락을 서구 남성들에게 제공해주었다. 또한 완벽하게 감춰지고 봉합된 공간으로서의 하렘은 서구 남성들의 제국주의적 정복을 추동하는데 기여했다. 즉, 동양을 정복하고픈 비밀스런 욕망은 바로 하렘의 벽들을 부숴뜨리고 싶은 욕구와 맞닿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탈리스트 아트에서 재현되는 주제들과 이미지들은 그것이

당시의 도덕적 기준들을 교란시켰기 때문에 늘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장르로서 인식되기도 했다. 오리엔탈리스트 아트는 이런 점에서 '타자에 대한 성적 욕망'과 '유럽의 부르주아적 도덕성'이 교차되고 시험받는 지점이 되었다(Shohat and Stam 1994).

남성에게 금기의 장소로 알려진 하렘을 직접 방문한 브라운의 그림에는 당시 주도적인 오리엔탈리스트 아트의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브라운의 그림은 하렘과 연상되던 모든 '상징적 기호들', 즉 성애, 화려함, 욕정, 남성 군주, 나체 등의 이미지들을 모두 지워내고, 대신 흰 벽으로 묘사되는 단순함과 소박함, 여성들의 일상적 관계와 우정 등을 부각시켰다.

루이스에 의하면, 브라운의 그림이 처음 전시되었을 때 남성에게 금지된 하렘이라는 공간에 실제로 진입함으로써 이슬람 여성의 현실에 근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비의 베일을 벗겨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브라운은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여준 대로, 하렘의 여성들을 '유곽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성적인 과다함'으로 재현하기보다는 그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일상성'을 그려냈다.

오리엔탈리즘과 오리엔탈리스트 아트에서 하렘이 성애화된 장소로써 서구 상상력 속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concept)'이었다면, 브라운은 이슬람 사회의 일상적인 여성 거주 공간으로서의 하렘의 '현실'을 그려냈다. 제국 여성 주체로서의 브라운은 하렘을 비성애화된 가정적인 장소 즉, 일상적 가사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로 그려냈고, 중산층 중심의 여성적이며 자율적인 공간으로 재현해냈다. 이는 브라운이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가정성 예찬(cult of domesticity)'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즉, 기독교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가족과 가정을 기독교인들의 이상적인 공동체로 개념화했던 당시의 상황에서(오정화 2002: 144) '하렘'은 성애적인 공간이 아닌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로 의미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루이스는 브라운의 그림들은 당시 주류를 이루던 데캉(Decamps)의 동양적 재현물과 재현의 관습들에 도전을 가한 것으로써,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된 지점을 분석한다(129-144). 하렘을 직접 '경험한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적 위치를 지닌 브라운의 그림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폄하되었다. '여성화가'의 '여성적' 장르라는 이름으로 특수하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주류의 오리엔탈리스트 아트와 다른 이유는 브라운이 오리엔탈리스트 아트의 기술과 화풍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폄하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가사영역 장르(domestic genre painting)를 그려온 브라운의 주제는 가족과 교육에 관한 것이었으며, 동양의 하렘을 그려내는데 있어서도, 오리엔탈리스트 아트에 내재된 '도덕의 경계점'을 시험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브라운의 그림은 '진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여성 작가들이 보이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가치 절하되었다. 그러나 브라운이 그린 일련의 화가-여행기로서의 동양에 대한 시각적 리포트들(visual reports)에 대한 낮은 평가는 브라운의 그림을 통해 재현되는 동양에 대한 '정보'가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서구 남성의 환타지에 도전하고, 오리엔탈리스트 남성 화가들이 확보해 온 시각을 무화시켰기 때문이었다(Lewis 1996: 121). 브라운 그림은 동양을 시간이 멈춰진 비역사화된 공간으로부터 일상적 '시간성'을 지닌 공간으로 복원시켜냈다. 또한 브라운의 그림이 보여주는 사회적, 역사적, 인종적, 성별화된 특수성들은 오리엔탈리즘의 동질화된 개념을 해체시키고, 다양한 비전과 목소리를 드러내는데 기여했다.

브라운의 그림으로 표현된 여행기는, 루이스에 의하면, 또한 당시 무엇이 진정한 '오리엔탈리스트 아트'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자신이 여행한 동양을 과도한 상상적 이미지가 아닌 본대로 묘사했다는 것이 가장 진실한 동양에 대한 재현인가에 대한 논란이었다. 당시 주류 남성 화가들은 오리엔탈리스트 아트는 진

실을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동양'을 '동양답게' 표현하는가가 관건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브라운이 충분히 오리엔탈리스트 화가로서의 기술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폄하했다. 이는 브라운의 화가로서의 기법과 기술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국적 대상물을 묘사하는데 요구되는 정밀하고 '사실적인' 기법의 결여 때문에 무미 건조하게 터키의 하렘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정당화시켰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서구의 식민 권력이 관철되고 있다는 어떤 흔적도 보여주지 못하는 브라운의 그림은 당시 식민권력을 재현하고 재생산했던 주류의 '이미지'들에 균열을 일으켰다.[11] 브라운의 그림이 보여주는 식민 권력에의 균열과 차이, 해체에 대한 위협을 자각한 당시의 화가들은 브라운이 여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정적인 것, 사적인 것, 여성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동양을 '진정'으로 재현하는데는 무리가 있었고,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런 방식으로 브라운의 그림이 가진 '전복적' 힘을 무화시켜냈다. 하렘을 일상적이고 가정적인, '비성애화'된 방식으로 재현하는 브라운의 여행 그림은 서구 여성과 피식민 동양 여성 사이의 '차이'를 없애버림으로써, 섹슈얼리티로 구성된 둘 간의 위계질서를 허무는데 기여했다.

---

11) 루이스는 브라운의 그림들이 서구가 비서구 타자인 동양에 갖고 있던 '소유의 환상(fantasy of ownership)'을 무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남성들의 그림들이 터키나 아랍이 서구의 식민지가 된 후, 서구가 약속한 진보와 물적 발전의 상징들인, 시계나 다양한 과학도구들을 그림속에 배열하거나 배치하여 '소유의 환상'을 증가시켰지만, 브라운의 그림은 이러한 서구의 '흔적'을 없애버렸다.

5. 맺음말

일반적으로 여행기와 여행에 대한 기록은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해왔다. 식민주의 시대의 여행과 여행기는 문명화된 서구와 원시적인 비서구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했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했다(Mills 1991). 최근에 서구 식민 권력을 비판하는 여성주의 분석들은 당시 식민지를 여행했던 여성 여행가들의 여행기를 새로운 학문적 분석의 영역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여성 여행기에 나타난 비서구 사회에 대한 재현이 식민 담론과 결합하거나 충돌, 경합하는 양상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특수한 성별 경험에서 비롯된 여성 여행자로서의 '시선(gaze)'이 지닌 정치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여행하는 여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공간적 제한과 규제'를 실험하거나 탐험하는 여성들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타자'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기록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19세기에 비서구 사회를 여행한 유럽 여성들은 또한 당시 팽배해 있던 서구 제국주의의 시각을 내재화하며, 프랫(Pratt 1992)의 용어대로, '제국의 눈(imperial eye)'으로 타자를 대상화했다. 그러나 여성의 '이동성'이 제공하는 '시각'은 남성 중심적인 식민담론과는 다른 '차이'들을 만들어냈다. 여성들은 제국주의적 담론을 내재화했지만, 그들의 글은 남성 작가들과 다른 방식으로 '타자'를 재현했다. 여성 여행기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차이'는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남성중심으로 구성된 제국주의적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와 비서구의 권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서구 여성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성별화된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이 생산해 낸 비서구 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언설은 한편으로

는 당시 제국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문명 진화론이나 '성애적'인 시각에 포섭 돼 있으면서도, 동시에 일정 정도 이러한 담론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들 여성들의 여행기는 당시의 남성 주도적인 지배 서사에 '차이들'을 만들어내었고, 이런 차이들은 식민담론과 젠더 담론의 교차는 모순적이고 유동적인 주체의 입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주의 분석의 예들을 제공함으로써, 본 논문은 공간적 제약을 넘어 '타자'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여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당시의 '권력'들에 도전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반하여, 피식민국의 경험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성별 경험과 피식민 지배의 경험이 결합되고, 모순적으로 경합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간디, 릴라(이영욱 옮김)
1998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현실문화연구.

강선미
2002 "조선파견 여선교사와 (기독)여성의 여성주의 의식형성,"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로빈슨, 더글라스(정혜욱 옮김)
1997 『번역과 제국: 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 서울: 동문선.

사이드, 에드워드(박홍규 역)
2000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양현아
1999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 10.

오정화
2002 "19세기 영국 기독교와 여성작가의 관계에 대한 재고," 한국여성학 18.2: 137-166.

윤택림
1995 "탈식민지 역사쓰기," 『한국문화인류학』 27: 45-78.

이옥순
1999 『여성적인 동양이 남성적인 서양을 만났을 때』. 서울: 푸른역사.

태혜숙
2001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홀, 스튜어트

1996 "서양과 그 외의 사회들, 담론과 권력", 현대성과 현대문화(2), pp. 180-263, 서울: 현실문화연구.

Abu-lughod, Lila

1998 "Feminist Longings and Postcolonial Conditions," in Abu-lughod, Lila (ed.), *Remaking Women: Feminism and Modernity in the Middle East*, Princeton a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3-31.

Blunt, Alison and Rose, Gillian

1994 *Writing Women and Space: Colonial and Postcolonial Geographies*, New York and London: The Guilford Press.

Bulbeck, Chilla

1998 *Re-Orienting Western Feminis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mberley, Julia V.

1993 *Thresholds of Difference: Feminist Critique, Native Women's Writings, Postcolonial Theor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Fabian, Johannnes

1983 *Time and the Oth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Lewis, Reina

1996 *Gendering Orient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McEwan, Cheryl

1994 "Encounters with West African Women: Texual Representations of Difference by White Women Abroad," In Blunt, Alison and Rose, Gillian (eds.), *Writing Women and Space: Colonial and Postcolonial Geographies*, New York and London: The Guilford Press.

Mills, Sara

1991 *Discourses of Difference: An Analysis of Women's Travel Writing and Coloni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Mohanty, Chandra Talpade

1991 "Under Western Eyes: Feminist Scholarship and Colonial Discourse," in Mohanty, et al. (eds), *Third World Women and the Politics of Feminism*,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Narayan, Uma

1997 "Restoring History and Politics to Third-World Traditions," *Dislocating Cultures: Identities, Traditions, and Third World Feminism*,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pp. 41-80.

Palsson, Gisli, ed.

1993 *Beyond Boundaries: Understanding, Translation and Anthroplogical Discourse*. Oxford, Providence: Berg.

Pieterse, Jan Nederveen and Parekh, Bhikhu (eds.)

1995 *The Decolonization of imagination*,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Pratt, Mary Louise

1992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New York: Routledge.

Shoemaker, Nancy

1991 "The Rise and Fall of Iroquois Women," *Journal of Women's History* 2(3): 39-57.

Shohat, Ella and Stam, Robert

1994 *Unthinking Eurocentrism: Multiculturalism and the Media*, London & New York: Routledge.

Stoler, Ann Laura

1996 "A Sentimental Education: Native Servants and the Cultivation of European Children in the Netherlands Indies," *Fantasizing the feminine in Indones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Taylor, Jean Gelman

1996 "Portrait of a Mistress in Literature and Film," Sears, Laurie J.(ed.), *Fantasizing the Feminine in Indonesi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225-248.

〈**Key concepts**〉: Colonial Discourse, Colonial Power, Sexuality, Gender Identity, Travel Journals, Orientalism, Orientalist Arts, Women travelers, Harem

Colonial Power and Sexuality: A Discourse on Colonization/Sex appearing in the Travel Journals of 19th Century Western Women

Hyun-Mee Kim

This paper analyzes the cohesion between colonial discourses and sexuality through the discourses and 'Eastern' images appearing the travel journals of western women. Sexualities were important motives in comprising colonial discourses and thus the hypermasculinized identity of the 'West' resulted in it portraying its Other, the 'East' as feminine in form. Through these sexualized images, colonial power could be naturally enforced in the colonized East. However with the analysis of travel journals, expedition logs and academic records of western women, recent feminist arguments effectively show how western women drew a totally different picture than those of their contemporary colonial male counterparts. Colonial discourses were far from singular in their viewpoints and contained many inconsistent and disparate ideas. Although colonial discourses driven by masculine desires were dominant when 'gender' acted as the essential image in colonial discourses, texts written by women portrayed 'differences' that created cracks in those 'sexualized' discourses. Centered on this feminist perspective, this paper analyses the travel journals of Mary Slessor, Mary Kingsley and Henriette Brown, the most renowned

women travelers of the 19th century.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attempts to show how western women 'de-sexualized' the Other, colonized women and thus created cracks in the dominant discourses while experiencing different cultures and people. This paper shows that the dichotomy of West and East is contributing to the deconstruction of 'colonial imaginations' by emphasizing that the intersection of colonial and gender discourses contain positions on contradictory and amorphous subjects.